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 모두 한마음

개최지 최종선정을 보름 앞두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염원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강원도불교연합회장인 제3교구본사 신흥사 주지 우송스님은 “강원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올림픽 개최를 위한 강원도의 오랜 염원은 남아프리카를 찾는 IOC위원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다”고 확신했다.

또 제4교구본사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은 “지난 평창이 시도한 두 번의 도전은 인연을 성숙시키는 과정이었고 이제 그 인연이 결실을 맺을 때가 됐다”며 “오늘 이 법회를 통해 불자들이 온 국민이 기원한다면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평창유치 확정 소식이 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이미 우리는 IOC에 약속한 경기장과 인프라 시설 등의 건립을 충실히 수행하는 등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불자들의 정성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정부와 조직위원회는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마음은 종교도 초월하고 있다. 가톨릭 서울대교구 미카엘 이준호 신부는 선수촌종교지도자를 대표해 발표한 공동기도문을 통해 “사찰은 물론 전국의 성당과 교회, 향교 등에서 2018년 올림픽 유치를 기도하고 있다”며 “태릉선수촌의 종교인들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간절히 기원하며 국민화합과 나아가 세계 평화 유치를 위해 반드시 유치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어현경 기자

조계사 7월6일까지 유치기원 타종기도

서울 조계사(주지 토진스님)는 지난 17일 낮12시부터 오는 7월6일까지 경내 대웅전 앞 범종루에서 제23회 동계올림픽 유치를 기원하는 타종기도를 봉행한다. 제23회 동계올림픽 유치를 염원하는 만큼 23번의 종을 울릴 예정이다. 조계사 관계자는 “7월7일 밤12시에 유치장소가 발표되는 만큼 사부대중의 염원을 담아 타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허정철 기자



조계종 포교원은 지난 16일 태릉선수촌 오륜관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기원 대법회를 열고, 7월6일 회의에서 평창이 최종 개최지로 선정되기를 염원했다.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부처님 가피로 동계올림픽 유치되길”

포교원, 태릉선수촌서 대법회 봉행

“전국 본·말사 3·7일 기도 이어갈 것”

“지구촌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분단국가에서 개최할 평창동계올림픽은 숙원사업 소멸해 평화통일과 공동번영, 세계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열망으로 대한민국의 기운이 모아지고, 부처님 가피로 평창동계올림픽이 유치되기를 지극히 발원합니다.”

강원도민은 물론 온 국민이 염원하는 2018년 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열릴 수 있도록 불교계가 마음을 모았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스님)은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을 21일 앞둔 지난 16일 태릉선수촌 오륜관에서 ‘국민화합과 세계평화

를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기원 대법회’를 개최했다. 16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참가자들은 오는 7월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리는 제123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평창이 개최지로 선정되기를 한 마음으로 기원했다.

이날 포교원장 혜총스님은 “1700년 한국불교역사와 전통을 계승해온 불교도들이 온 국민의 염원에 부응해 2018년 동계올림픽 성공유치를 위한 기원법회를 마련했다”며 “개최지가 결정되기 전까지 앞으로 21일 동안 선수촌 법당은 물론, 전국의 본

말사와 신행단체에서 3·7일 기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법문을 통해 “강원도민은 물론, 90%가 넘는 국민이 동계올림픽 유치를 지지하고 기원하고 있다”며 “불자들이 21일 간의 기도에 염원을 담은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을 확신했다.

법회에는 또 최근 유림을 순방하며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평창을 홍보한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참석해 불자들의 응원에 감사 인사를 올렸다. 정 장관은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참가했던 지난 두 차례 도전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실 패는 아니다”라고 단언하며 “부처님의 가피와 불자들의 원력으로 오는 7월6일 더반에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했다.

끝으로 참가자들은 발원문을 통해 2018년 동계올림픽을 평창에서 개최할 수 있기를 기원했다. 대표로 발원문을 낭독한 이기흥 체육인불자연합회 회장은 “태릉선수촌의 종교인들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간절히 기원하며 국민화합과 나아가 세계 평화 유치를 위해 반드시 유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회에 앞서 오전11시 태릉선수촌 필승관 2층 선수촌법당(주지 퇴휴스님)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범국민 3·7일 기도’ 입재식이 봉행됐다. 개최지가 선정되는 오는 7월6일까지 전국 교구본·말사에서 동계올림픽 유치를 기원하는 축원기도를 봉행할 예정이다.

어현경 기자 eorald@ibulgyo.com

알림



불교신문

불교신문 m.ibulgyo.com 스마트폰에서 만나세요

불교신문이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등 모든 스마트폰 인터넷 주소창에 ‘m.ibulgyo.com’을 입력하면 ‘모바일 불교신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불교신문은 스마트폰 환경에 맞도록 구성돼 편리하며, 최신기사와 인기기사, 사진기사 등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불교신문 QR코드’를 찍어 손쉽게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전용공간을 마련한 데 이어, 5월에는 홈페이지 전면 개편과 함께 이번 모바일 서비스 개시로 독자 여러분의 소통에 매진하고 있는 불교신문은 앞으로도 좀 더 가깝게 다가가는 언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서도 불교신문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민등록초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진단서(교육원에서 정한 소정 양식과 검사항목)

※반명합판사진 4매(사발, 행자복 착용)

※ 등록사찰 주지스님은 제출서류 일체를 2부(직할교구는 1부) 작성하여 교구본사에 접수하여 주시고, 교구본사 주지스님은 1부를 교구본사에 비치하고 1부를 교육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교

1) 수계교육 대상 행자의 입교는 교구별로 담당 소임자의 인솔 하에 입교일 오전 11시 까지 수계교육 장소에 입교하여야 합니다.(직할교구는 사찰별로 소임자의 인솔 하에 입교)

2) 접수장소 : 각지사 설법전 1층 / 11시 접수시작

3) 준비물 : ① 목탁(가로지름:12-14Cm) ② 요령(지름:7-8Cm)

③ 발우 ④ 우산 ⑤ 사미·사미니의제(적삼, 동방, 두루마기, 장삼, 장삼띠, 행진) ⑥ 필기도구 ⑦ 세면도구 ⑧ 식발용 면도기 ⑨ 목욕가방(화색) ⑩ 개인용 겹 ⑪ 침구(모로 1매) ⑫ 주민등록증(사발 / 행자복 또는 사미의제)

4) 복 장 : ① 흰교무신 ② 행자복(만드시 2벌 지참)

③ 흰색·회색 속옷(반팔, 사각)

※ 지참물 및 복장 외 준비 시 귀사 조치함.

※사미·사미니계 수계비(가사비) : 13만원

1) 입교 당일 현장접수

2) 사전 납부하실 분은 <농협 053-01-277731 / 예금주 대한불교조계종>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총무부 / 02-2011-1703)

※문의 처

1) 해당 교구본사 총무소 (교구본사 연락처 및 홈페이지)
2)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45번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전화 : 02-2011-1801)

※유의사항

1) 연령 18세 미만인 출가자의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수계교육이 가능합니다. 이때 첨부해야 할 서류는 본인서약서 및 예정 은사스님 교육보증각서입니다. 서약서 및 교육보증각서의 내용에 따라 구주계 수지 이전까지 고졸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해야지만 구주계 수계 자격이 주어 집니다.
2) 건강진단서 발급은 국립·도립·시립의료원 및 대학병원 이상의 병원 중 교육원에서 요청하는 건강진단서의 모든 항목 검사가 가능한 병원만을 인정합니다.
3) 서식 다운로드(www.buddhism.or.kr) 및 서식확인 <조계종홈페이지 - 총무자료실 - 총무자료 - 교육원 - 수계교육입교관련서류>
4)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사실 기재가 드러날 경우 교육원은 직권으로 행자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준비물은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불기 2555(2011)년 6월 17일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현 응

제41기

사미·사미니계 수계교육 공고

불기2555(2011)년 제41기 사미·사미니계 수계교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찰 주지스님께서는 수계 대상 행자가 빠짐없이 수계교육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입교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 간 _ 불기 2555(2011). 8. 18.(음 7. 19. 목) ~ 9. 2.(음 8. 5. 금) 16일간

※장 소 _ 제8교구 본사 직지사(경북 김천시 소재)

※신청자격

1) 불기2554년(2010년) 9월 18일 부터 2555(2011)년 3월 4일까지 교육원에 행자등록한 자 중 ‘행자교육운영에 관한 령’에 따른 입문교육을 필한 자.
2) 불기 2554년(2010년) 9월 17일 이전 등록 후 입문교육을 필한 자.
※ 교육원은 2011년 7월 31일까지 교구본사를 경유하여 입교 대상자를 통보합니다.(직할교구는 교육원에서 직접 통보)
※ 제 41기 수계교육 수료 후 사미·사미니계 수계식을 갖습니다.

※접수기간 - 불기2555(2011). 7. 1. ~ 2555(2011). 7. 15.

※접 수 처 - 해당 교구본사(직할교구 소속 행자는 교육원에 직접 접수)

※교구본사는 2011년 7월 12일(오전)까지 입교지원서류 접수 완료.
※교구본사는 취합된 서류를 7월 15일(우편)으로 인장까지 교육원에 제출.

※제출서류

1) 사미(니)계 수계교육 입교지원서(소정양식)
2) 신상명세서(소정양식)
3) 등록사찰 주지 추천서(소정양식)
4) ①제적등본(호적)
②기본증명서
③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첨부)
④혼인관계증명서